IBK경제연구소 | 금융산업팀 연구위원 박강희(☎02-729-6178, can17can17@ibk.co.kr)

학자금 대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5.9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 IBK경제연구소

목차

Ⅰ. 검토배경 ····· 1

Ⅱ. 학자금 대출현황 ····· 2

Ⅲ.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안 ····· 5

1) 모럴해저드 억제를 위한 투자형태의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
2) 취업 준비기간의 이자면제와 취업 후 이자할증제 도입
3) 취업률이 높은 공학계열에 금리 완화 정책 추진
4) 학자금대출의 사각지대 해소

붙임1. 국내 학자금 대출제도 ····· 14

붙임2. 미국 및 일본 학자금 대출제도 ····· 16

Ⅰ. 검토배경

□ '14년 기준 대학등록금은 연평균 612만원(4년제 학부 기준)으로 OECD 국가들 중 국공립대학 4위, 사립대학 5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임

※ 인문사회계열 : 572만원, 자연과학계열 : 669만원, 공학계열 : 733만원, 의학계열 : 923만원, 예체능계열 : 701만원

○ '10년 정부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도(든든학자금대출)를 신설하여 상환 부담을 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14.09월 신용유의자*를 대상으로 채무 조정도 시행함

* 6개월 이상 장기 연체된 사람

○ 또한, 정부는 '12년부터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 후 매년 지원을 확대하여 등록금 부담 완화에 노력 중임

- '14년 평균 국가장학금 지급액은 1인당 257만원으로 실질 대학 등록금 부담액 수준은 1인당 연평균 355만원(전문대학 제외)으로 낮아졌으나, 연간 학자금 대출규모는 크게 감소하지 않은 상황

〈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액 추이 〉

(단위 : 억원)



□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상환 연체자는 상당수에 달함

○ '14.12월 기준 원금 또는 이자를 납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는 4만 4,620명(정부보증대출* 제외)이고, 신용유의자도 2만 231명에 달함

* 학자금 대출이 한국장학재단으로 통합되기 이전 제1금융권에서 취급한 학자금 대출상품

□ 본 보고서는 학자금 대출현황을 분석하고, 연체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함

Ⅱ. 학자금 대출현황

□ '14.1학기 기준 한 학기 등록금 마련을 위해 11.9%(생활비 포함 14.8%)의 대학생들이 평균 270만원(생활비 포함 306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음

〈 한 학기 평균 학자금 대출액수 〉

(단위 : 백만원)

구 분	평균 등록금 대출액			평균 등록금+생활비 대출액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든든 학자금대출	평균 대출액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든든 학자금대출	평균 대출액
대학교	329	263	275	339	299	306
전문대	299	254	260	322	305	307
전 체	321	260	270	334	301	306

※출처 :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통합비교, '14.1학기

〈 한 학기 평균 학자금 대출 이용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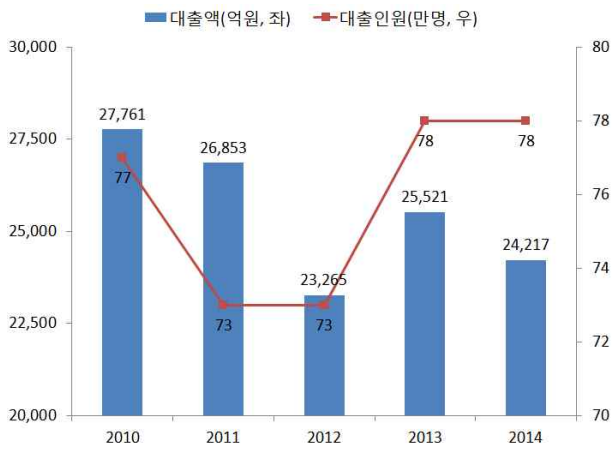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등록금 대출 이용비율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용비율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든든 학자금대출	합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든든 학자금대출	합계
대학교	1.9	8.7	10.6	2.2	11.3	13.5
전문대	2.4	14.2	16.6	2.7	16.8	19.6
전 체	2.0	9.9	11.9	2.3	12.5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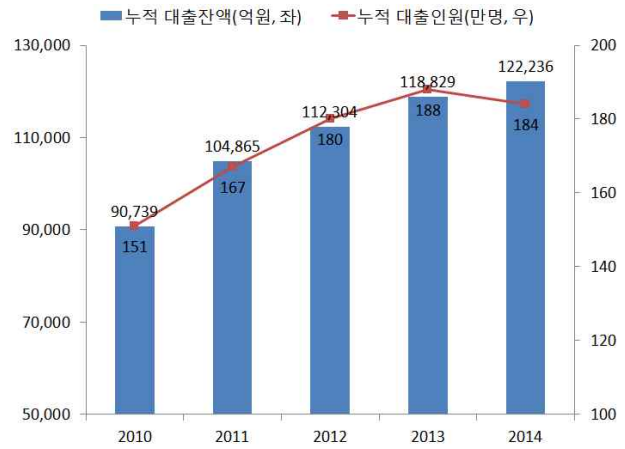
※출처 :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통합비교, '14.1학기

□ (연도별)'12년 국가장학금 시행으로 정부의 학자금 대출규모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누적 대출규모는 지속 증가

〈 연도별 학자금 대출규모 〉



〈 누적 학자금 대출규모 〉



※출처 : 한국장학재단, e-나라지표

《참 고》

◇ 국가장학금 현황

○ ’12년부터 정부는 국가장학금제도를 도입(타 장학제도와 중복수혜 가능)하여 1인당 연평균 248만원 가량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있음

〈 소득별 국가장학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소득분위	기초생활 수급권자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8분위
지원금액	480	480	360	264	168	120	67.5
다 자 녀	480		450				

※출처 : 한국장학재단

〈 1인당 연평균 학자금 부담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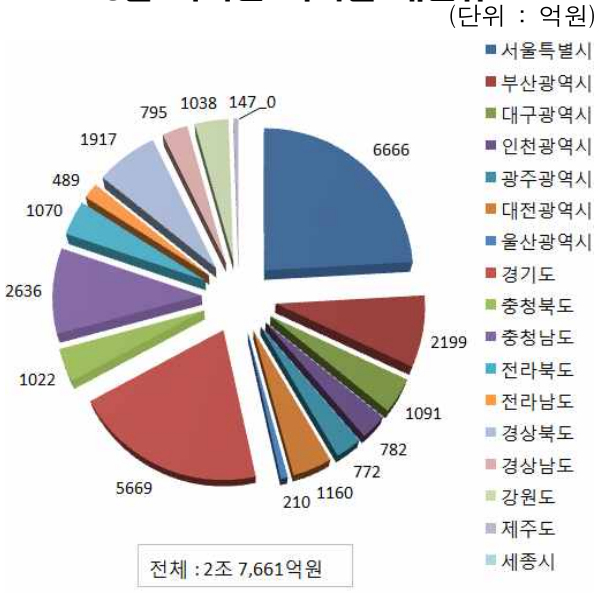
구 분	연평균 등록금(A)	연평균 장학금(B)	실질 연평균 부담액(A-B)
대 학 교	612	257	355
전문대학	510	239	271

※출처 : 대학알리미(’13.2학기 기준)

□ (지역별) ’14년 학자금 대출규모는 ’10년대비 대부분 줄어들었으나, 서울시는 오히려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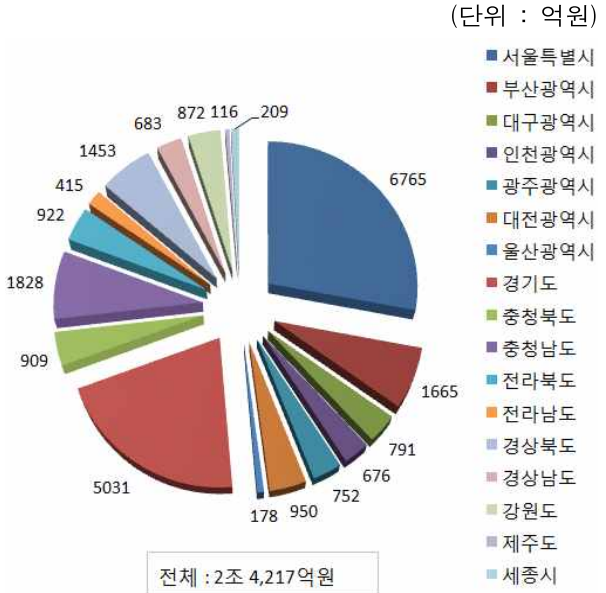
〈 ’10년 지역별 학자금 대출규모 〉

(단위 : 억원)



〈 ’14년 지역별 학자금 대출규모 〉

(단위 : 억원)



□ **(유형별) 든든학자금 대출제도가 시행되면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는 숫자는 감소하고 있음**

〈 제도별 대출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10	'11	'12	'13	'14
든든학자금	8,456	10,873	15,150	17,811	16,386
일반상환학자금	19,205	15,980	8,114	7,709	7,831

※출처 : 한국장학재단

□ **(학력별) 전문대와 4년대 학자금 대출은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되고 등록금이 소폭 인하되면서 1인당 대출액은 감소함**

○ 반면, 대학원생은 국가장학금 혜택이 없고 등록금도 매년 인상되면서 1인당 대출액이 29만원 증가함

〈 학력별 대출현황 〉

(단위 : 만명, 억원, 만원)

구 분		'10	'11	'12	'13
전문학사	인 원	30.1	25.3	20.8	22.6
	금 액	10,682	8,618	6,038	6,694
	평균액	355	341	290	295
학 사	인 원	41.1	41.9	44.6	47.7
	금 액	14,832	15,290	13,686	14,927
	평균액	361	365	307	313
대 학 원	인 원	5.0	6.2	7.4	8.1
	금 액	2,247	2,944	3,540	3,899
	평균액	450	474	480	479

※출처 : 한국장학재단

Ⅲ.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안

1 모럴해저드 억제를 위한 투자형태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

□ (연체 현황) 연체자수와 연체금액은 '12년을 정점으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기존의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이용자가 든든학자금대출로 이동한 효과*

*든든학자금 대출로 이동하면서 상환 시효가 연장됨

○ (신용유의자 현황) '14.9월 정부가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의 채무조정**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연체로 인한 신용유의자 수는 2만명을 초과하는 상황

* 6개월 이상 장기 연체된 사람

**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을 매각하고 원금의 30~50%를 감면해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줌

〈 연체 현황 〉

(단위 : 명, 억원, 말기준)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연체자수[주1)] (신용유의자수)[주2)]	40,682 (10,250)	53,008 (22,142)	62,828 (26,097)	97,167 (31,363)	94,850 (40,419)	77,213 (41,691)	81,302 (20,231)
연체금액 (신용유의자연체금액)	1,759 (461)	2,394 (1,126)	3,045 (1,362)	4,954 (1,656)	5,066 (2,325)	3,885 (2,595)	4,002 (1,252)

주1) 정부보증대출('08년이전)+일반상환학자금대출
주2) '15.06월 기준 신용유의자수 20,915명(연체금액 : 1,358억원)

□ (든든학자금 대출상환현황)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졸업자 중 대출금 상환을 시작한 인원은 68%에 불과

○ 대출자 중 32%는 졸업 후 취업을 못했거나, 소득이 상환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정

*'14년 기준 상환기준은 소득 4인가구 최저생계비의 100%인 1,856만원

○ 장기미상환자*도 급증('13년말 : 1천명 → '14년말 : 1만 3천명)

*든든학자금 대출은 졸업 후 3년간 원리금 5%이상 갚지 못하면 장기미상환자로 분류함(신용유의자로 분류하지 않음)

**장기 미상환자는 신용평점이 내려가는 불이익은 없으나, 국세청에서 배우자를 포함하여 재산조사를 실시

〈 든든학자금 대출상환현황 〉

(단위 : 명, 억원, %)

구 분	대출		상환		상환비율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상환자 비율	상환액 비율
'10년 졸업자 대상 (졸업 후 4년 경과)	21,171	1,007	12,791	302	60.4	30.0
'11년 졸업자 대상 (졸업 후 3년 경과)	49,373	3,609	35,945	904	72.8	25.0
'12년 졸업자 대상 (졸업 후 2년 경과)	80,864	5,896	52,724	1,240	65.2	21.0
'13년 졸업자 대상 (졸업 후 1년 경과)	113,774	9,858	79,661	1,798	70.0	18.2
합계	265,182	20,370	181,121	4,244	68.3	20.8

주) 1,2학기 전체 졸업자, '14.12월말 기준

□ [문제점] 연체자가 늘어나면서 모럴해저드 양산의 우려가 있는 반면, 낮은 상환율로 인한 한국장학재단 재정부담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정책실패의 조짐이 보이고 있음

○ 신용유의자를 줄여주기 위해 채무조정을 시행하고 있으나 미봉책에 불과

→ 채무조정을 시행할수록 상환의지가 없는 악성 연체자가 양산될 가능성 존재

○ 학자금 대출의 연체자가 늘어나고 상환율이 하락할수록 대출재원의 부실이 생길 가능성은 높아짐

→ 부실난 부분은 세금으로 충당되므로 결국 특정계층이 빌린 돈을 국민이 갚아주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될 가능성 존재

⇒ 학자금 제도가 궁극적으로 대출기반에서 투자형태의 개념으로 바뀔 필요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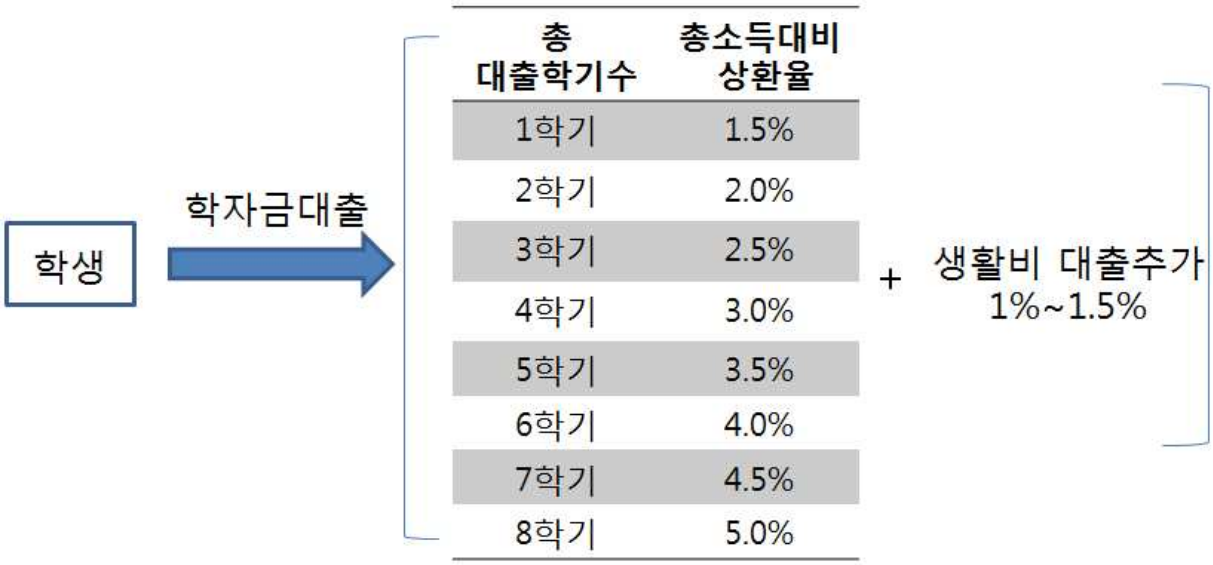
□ [개선안] 재정부실과 연체 모두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투자형태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이 필요

○ (예시) 전 학기(8학기기준) 대출자는 일정기간동안 향후 소득의 5%를 상환하고, 대출받는 학기가 줄어들수록 소득대비 상환율도 일정하게 줄어드는 구조 (생활비 대출을 추가로 받은 사람은 금리를 가산)

- 모럴 해저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의무 상환액수는 대출금의 절반으로 정하고, 최대 상환액수는 대출금의 2배로 상한함

- 국세청 등의 업무 협조를 통하여 증여 또는 상속을 받는 경우 상환을 강제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이 필요

〈 투자형태의 학자금 대출상환 제안모형 〉



□ [개선안의 장·단점] 본 제안모형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음

○ (장점) 대출자에게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양질의 취업자리를 찾을 여유를 주고 신용유의자가 되는 것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고소득자의 높은 상환액에 따른 재정부실 위험도 감소

- 고소득자는 대출금이상의 높은 상환을 지불하므로 상환이 부족한 사람의 재정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효과

○ (단점) 전업주부나 프리렌서 또는 개인사업자 등 소득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최소 상환만 시도할 수 있음

- 이로 인하여 심사조건을 보수적으로 하여 향후 고소득이 될 만한 가능성이 높은 학교 및 학과의 학생에게만 지원이 집중될 우려도 존재

《참 고》

◇ **'소득공유 플랜'이란 최근 미국 민간부분의 비영리 단체에서 제안 및 시행되고 있는 학자금 대출방법**

ㅇ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졸업하여 직장을 구한 뒤 소득이 연 18,000달러 이상되면 상환에 들어감

- 상환액은 대출원금에 상관없이 수입의 5%씩 15년간 상환함
- 수입이 많을 경우 빌린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갚게 되고, 수입이 적으면 15년간 빌린 돈보다 적게 상환하더라도 남은돈은 상환하지 않아도 됨
- 총 상환액의 상한선은 6만달러(대출액의 약 4배)

ㅇ 이 방법은 학생의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 개념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

- 학자금 상환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
- 고소득자에게 원금보다 많은 상환액을 받음으로써, 저소득자에 대한 원금 상환 감면

2 취업 준비기간의 이자면제와 취업 후 이자할증제 도입

□ (현황) 정부는 저소득층에 이자부담을 경과하는 정책을 시행 중

○ (든든학자금)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3분위에 대해서는 이자 전액을 지원

- 취업 후 일정소득이상 발생 전까지 이자납부 유예

○ (일반상환학자금) 지역마다 저소득층에 대하여 수학기간 중(수학기간 후 취업 전까지는 부과) 일부 이자지원

-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2분위는 전액지원, 소득 4~5분위는 이자 발생액의 90% 지원, 소득 6~7분위는 이자 발생액의 70% 지원, 다자녀 가구는 둘째부터 이자 발생액의 50% 지원
- 이외에 성남시, 제주도, 광주시, 통영시, 장수군, 과천시 등의 지자체에서도 저소득층에 이자지원 실시 중

□ (문제점) 이자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득층은 취업 전에도 대출액이 상승할수록 이자상환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는 구조이며, 저소득층도 수학기간이 끝나면 취업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자납부에 대한 부담 증가

○ 든든학자금 대출은 재학 중 이자부담이 없고 졸업 후에도 취업 전까지 원리금 상환은 유예되나 이자증가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존재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은 대출즉시 이자납부(의무불이행시 연체이자부과 및 6개월 연체시 신용유의자로 분류됨)를 해야하므로 취업 전에도 이자 납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 취업 전 이자면제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필요

□ (개선안) 취업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는 대신 면제기간이 늘어날수록 취업 후 이자율을 가산하는 방법

○ 학자금 대출시점부터 취업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여 취업자에게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대신, 취업 후에는 면제기간이 길수록 이자율을 가산하여 상환이 빠를수록 이자를 적게 내는 구조

〈 이자감면후 가산금리 적용모형 〉



□ (개선안의 장·단점) 이자에 대한 부담완화로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만한 심리적 여유가 길어지는 반면 취업 후 상환부담은 증가할 수 있음

○ (장점) 취업 시까지 대출원금만 유지되므로 상환에 대한 일시적인 심리적 부담은 경감

○ (단점) 이자유예기간이 늘어날수록 향후 상환 부담이 더욱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유예기간이 일정시간 흐른 사람의 경우 의도적으로 취업을 회피하는 모럴해저드 가능성도 있음

《참 고》

◇ 일본이 시행하는 무이자 제도와 뉴질랜드가 시행하는 높은 이자정책의 장점을 차용

○ 일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수인력에게 이자를 면제시켜주어 심리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를 시행 중

○ 뉴질랜드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율(연 7%)을 타 대출상품보다 높여, 자발적 상환이 본인의 부채경감에 유리하게 유도하고 있음

3 취업률이 높은 공학계열에 금리 완화 정책 추진

□ **(현황) 공학계열 등록금은 연평균 732.6만원으로 인문사회계열(571.7만원)보다 학자금대출 부담이 큰 상황**

○ 반면, 졸업자의 취업률은 '14년 기준 66.9%로 인문(45.9%)·사회(56.6%) 계열보다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어 향후 대출금 상환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

□ **(문제점) 현행제도는 공학계열의 취업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이자를 부과하여, 연체자가 될 확률이 높은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오히려 더 혜택을 누리는 역선택 구조임**

⇒ 취업률이 높은 공학계열에 인센티브 차원의 이자지원이 필요

□ **(개선안)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공학계열의 이자율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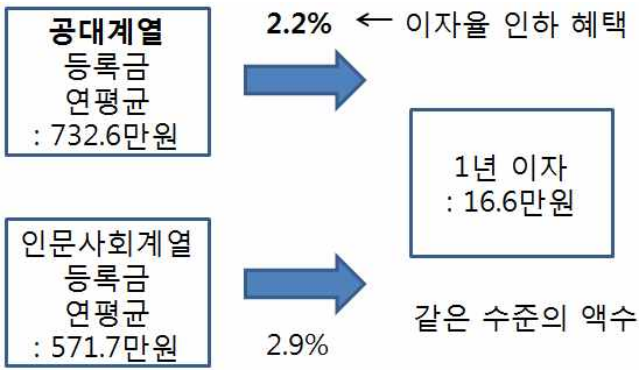
○ 공학계열의 대출이자를 인문·사회계열의 연평균 등록금에 대한 이자발생금액과 동일수준으로 이자율을 낮추는 혜택을 줌

- 취업률이 높은 공학계열의 지원을 높임으로서, 청소년의 공학계열 진학률을 높이는 효과 예상

"정부는 산업계의 요구를 대폭 반영하고 대학구조개혁과 취업률 상승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대계열 정원 확대를 추진 중"

- 중앙일보 15.07.26일자 기사 발췌 -

〈 공학계열 학자금 지원 방안 〉



□ **(개선안의 장·단점) 정부의 공학계열 장려 취지와 부합하는 정책이나, 타계열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ㅇ (장점) 이자율 감면혜택은 청소년들의 공학계열 진학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장기적으로 정부와 산업계가 원하는 인재 육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를 지님

ㅇ (단점) 타계열에 진학한 학생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음

4 학자금대출의 사각지대 해소

□ **(현황) 저소득 대학원생들은 든든학자금 대출제도나 이자감면혜택 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 **(문제점) 특히, 대학원생들의 취업률 평균은 67.2%로 학부생 취업률 평균 54.8%보다 월등히 높아, 든든학자금 대출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향후 상환율 측면에서 학부 졸업생들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됨**

⇒ 대학원생 내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

□ **(개선안) 제도의 사각지대 및 재원 충당 측면에서 취업률이 높은 대학원 계열의 재학생 중 소득 1~8분위 대학원생들에게는 학자금대출제도의 범위 확대가 필요**

□ **(개선안의 장·단점) 저소득층의 대학원생들에게도 학부생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으나, 취업을 기피하기 위해 대학원을 진학하는 학생이 더욱 증가할 우려도 존재**

ㅇ (장점) 학부생과 동일한 형평성을 유지한 학자금대출 혜택을 줌

ㅇ (단점) 학업에 뜻이 없는 학생에게 학자금대출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원이 취업의 도피처로 부각될 수 있음

【 참고 문헌 】

- 대학알리미 통계자료
- 대학교육연구소 통계자료, 2014-15 12호 (통권 31호), 2015
- e-나라지표 통계자료
- 한국장학재단
- OECD(2014). Education at a glance
- 금융감독원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국세청, 2013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모형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0
- 학자금 대출과 대학생의 취업준비 및 성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 빛나기 위해 빚내는 청춘 : 2015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실태조사 및 문제점 진단, 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5
- 재학 중 학자금 대출이 노동시장 초기성과에 미친 효과, 한국노동경제학회, 2013
- 학자금대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금융연구원, 2015

붙임 1. 국내 학자금 대출제도

□ '09년 학자금 제도 통합 이후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을 운영 중

○ 학자금 대출제도는 사용목적과 대출유형에 따라 5종류로 구분됨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제도 〉

구분		신청대상	대출규모 및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록금 대출	든든 학자금대출	- 국내대학 재학생 및 입학예정자 (대학원생 제외) - 가구소득 8분위 이내 (다자녀가구 제외), 만 35세 이하	- 대출규모 : 50만원~등록금 전액 - 대출금리 : 2.9% 변동금리	- 소득 발생 전 : 원리금 상환을 소득 발생 이후로 유예 가능 - 소득 발생 후 : 기준소득 초과분의 20% 원천징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국내대학 재학생 및 입학예정자 (대학원생 포함) - 가구소득 9분위 이상, 만 55세 이하	- 일반대학교 : 4천만원 - 5/6년제/대학원 : 6천만원 - 의약계열 : 9천만원 - 연 2.9% 고정금리	-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대출	- 6개월 이상 농어촌 거주 학부모 자녀 또는 본인	- 대출규모 : 10만원~등록금 전액 - 대출금리 : 무이자	- 원금균등분할상환 :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경과시점부터 상환 개시
생활비 대출	든든 학자금대출	- 학자금 대출대상과 동일	- 학기당 50~150만원까지 1회 이용가능 - 2.9% 변동금리	- 학자금 대출대상과 동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학자금 대출대상과 동일	- 학기당 50~100만원까지 1회 이용가능 - 2.9% 변동금리	- 학자금 대출대상과 동일

※출처 : 한국장학재단
※공통기준 : 직전학기 12학점이상이수, 직전학기 평균 C학점 이상, '15년 1학기 기준 ('15년 2학기 현재 대출금리는 연 2.7%)

○ 한국장학재단은 '08년 이전 학자금 대출자들에게는 전환대출과 유예대출 등 대환대출 방식의 제도도 운영하고 있음

〈 한국장학재단 통합 이전의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대환대출 제도 〉

구분	제도개요	신청대상	이용방법
전환대출	- 대출받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든든 학자금 대출로 전환	- 만 35세 이하의 학자금 대출잔액 10만원 이상인 사람 중 학자금 대출 자격 충족 시 가능	- 해당학기에 실행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잔액만 든든학자금 대출로 전환 가능
유예대출	- 대학 졸업 후 경제적 곤란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 후 분할상환	- 일반학자금 대출잔액이 남아있는 대학(학부) 졸업생으로 만 35세 이하	- 유예기간 종료일 또는 중단 신청일 익월부터 48개월 동안 무이자 분할 상환 ※ 유예종료 4년 후 대출 만기일에 전액 일시상환

※출처 :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부분의 학자금 대출을 운영하지만 제2금융권 이하에서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음

○ '14.11월말 기준 저축은행 이용자 수는 6만 1,009명, 대출금은 2,074억원으로 1인당 약 340만원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남

- 학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대출은행은 총 27곳, 평균금리는 27.7%임
- 대부업체 이용자는 총 2,781명, 대출금은 51억 3,200만원, 1인당 대출금액은 180만원, 평균금리는 36.6%

〈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의 학자금 대출현황 〉

구분	대출자	총 대출금	1인당 대출금	평균금리	연체금액	취급수
저축은행	61,009명	2,074억원	340만원	27.7%	213억원	27곳
대부업체	2,781명	51.3억원	180만원	36.6%	61,070만원	-

※출처 : 금융감독원

붙임 2. 미국 및 일본 학자금 대출제도

1 미국 학자금 대출제도

□ 미국은 크게 교육부(연방정부)와 민간기관(대학교)이 운영하는 두 종류의 학자금이 존재

○ (교육부) Direct Loan이라는 제도로 세부적으로 4종류가 존재

① Direct Subsidized Loan(보조금형) : 대학 및 직업학교 등 고등교육 비용 충당하기 위한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학부생 본인이 소명하면 지원가능

② Direct Unsubsidized Loans(비보조금) : 대상은 학부생, 대학원생이며 학생이 본인의 재정상태 증명은 불필요

③ Direct PLUS Loans(추가대출) : 대학원생, 박사과정, 학부생의 학부모까지 대출 가능하며, 여타의 재정도움으로 충당되지 않는 기타교육비 마련을 도와줌

④ Direct Consolidation Loan(대환대출) : 대환적격의 복수의 연방 학자금 대출을 하나의 계좌로 대환하는 학자금 대출

○ (민간기관) Perkins Loan 제도라 불리며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대학교가 직접 대출해 주는 제도

< 학자금 대출의 한도 >

구분		한도	비고
학부생	Perkins	USD 5,500	학생 재정상태, 기타부채, 교육기관 재무상태
	Direct Sub&Unsub	USD 5,500~12,500	학년 등 고려
대학원생	Perkins	USD 8,000	학생 재정상태, 기타부채, 교육기관 재무상태
	Direct Unsub	USD 20,500	
학부모(학부)	Direct Plus	기타 실비	PLUS 대출시 신용조회 실시
	Direct Plus	기타 교육비	PLUS 대출시 신용조회 실시

〈 학자금대출 금리 〉

Direct Loan('15.07 이후)		
구분	차주	금리
Direct Subsidized Loans	학부생	4.29%
Direct Unsubsidized Loans	학부생	4.29%
Direct Unsubsidized Loans	대학원생, 박사과정	5.84%
Direct PLUS Loans	학부모, 대학원생, 박사과정	6.84%
Perkins Loans		5%

□ **'14.2분기 기준 약 4,100만명이 1조 1,900억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중이며, 1년이상 연체자는 700만명(17%)에 육박(전년대비 60만명 증가)**

2 일본 학자금 대출 제도

□ **(현황) 제1유형(무이자) 대출과 제2유형(이자) 대출제도가 있음**

○ (제1유형대출) 무이자 대출로 학문적으로 뛰어나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학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함

- (급여연동형 상환유예제도) 졸업 후 급여가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
- (학업성과가 우수한 대학원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상환 면제제도)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가 특출한 학업 성과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

*'12년에는 32,289명중 9,670명의 대학원 대출자가 상환금을 일부면제 받음

○ (제2유형대출) 이자가 부리되는 유형으로 대출금리는 일본학생지원기구가 정부로부터 조달하는 금리와 같으며 일반적 교육관련 대출보다 저렴함(고정금리: 연0.82%, 변동금리: 연0.20%, 최고 연 3.0%이하로 규정)

*제2유형 대출은 졸업 전과 상환의 유예기간에는 이자가 부리되지 않음.